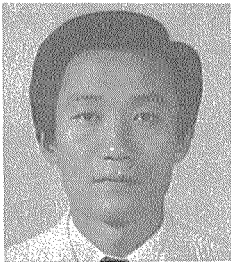


# '89年度 世界經濟 및 國際貿易 環境



韓 萬 中

韓國生産性本部 調査部  
先任研究員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환율 조정과  
같은 단기적인 지출전환정책과  
함께 각국의 산업구조개선 등  
장기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의 재정 및 무역수지적자 감축  
노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주요 선진국간의 정책협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1988年度 世界經濟는 예상과는 달리 호황을 누렸으며, 이러한 호황 속에서 世界經濟 主導國으로서 美國의 지위가 보다 약화되었고, 日本 및 아시아 NICS의 경제적 지위는 보다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國家間 貿易不均衡이 심각해지면서 GATT 체제가 약화되었고, 新保護主義 및 世界經濟의 블럭화 경향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9월 23일 美國의 綜合貿易法이 의회를 통과하여 1989년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國際貿易環境은 雙務的 相互主義로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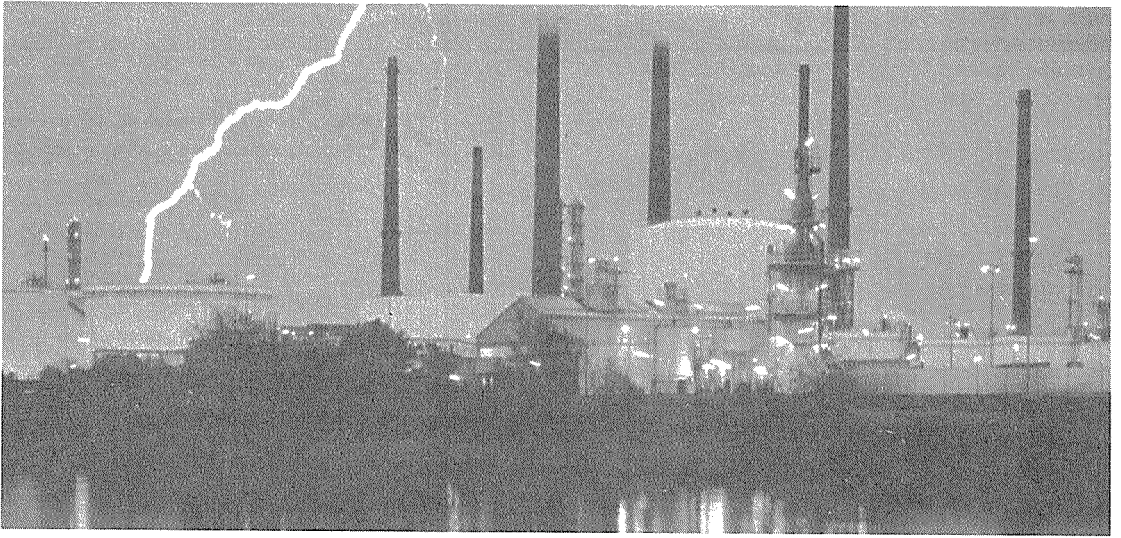
이에 1989年度 世界經濟와 國際貿易環境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89年度 世界經濟의 展望

### 가. 經濟成長

1987年 10月의 證市波動에도 불구하고 1988年 世界經濟는 美·日 등 主要 先進國들의 급속한 景氣 회복에 힘입어 3%이상의 비교적 높은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世界經濟는 主要 先進國間의 經常収支 不均衡 및 開發途上國의 外債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主要 先進國들은 작년부터 物價上昇을 억제하기 위해 金融緊縮政策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財政緊縮政策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世界의 經濟成長率은 2.7~3.1%에 머물 것이며, 先進國의 成長率은 '88年보다 다소 낮아진 2.5~3.3%, 開發國은 다소 높아진 2.8~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表1 참조)

한편 당초 우려와는 달리 70개월 이상의



국제무역 환경은 쌍무적 상호주의로 더욱 빠져들고 있다.

景氣擴張局面을 맞고 있는 美國經濟는 1988년에 3.8~4.0%의 成長率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89년에는 投資不振, 物價上昇과 함께 작년 달러貨 強勢에 기인한 輸出增加勢 鈍化등으로 '89年 美國의 成長率은 1.9~3.0%로 낮아질 전망이다. 海外部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內需擴大로 '88년에 5.1~5.8%의 經濟成長率이 예상되는 日本은 政府投資의 바탕위에서 民間消費와 企業의 設備投資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89년에는 3.7~4.5%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이다.

나. 貿易·國際收支

1983年 이후 꾸준한 伸張勢를 보여온 世界

交易量은 '88年에도 換率 安定, 景氣好調로 6.8~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9년에는 先進國의 景氣鈍化와 世界經濟의 블럭화, 保護貿易主義의 심화, 開發途上國 輸入 增加勢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世界交易量 增加率은 4.5~5.6%로 떨어질 전망이다.(表2 참조)

先進國 전체의 交易伸張率은 先進國들의 成長勢 鈍化를 반영하여 1988年보다 완만한 4.4~5.4%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世界 交易量의 1/4를 차지하는 世界 最大輸入國인 美國의 輸入 增加勢 鈍化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즉, 1986년에 13.5%였던 美國의 輸入增加率이

表 1 世界 經濟成長率 展望

(單位 : %)

年度 國別	1986	1987	1988				1989				
			IMF	WEFA	DRI	OECD	IMF	WEFA	DRI	OECD	KIET
世界	3.2	3.1	3.8	3.5	-	-	3.1	2.7	-	-	2.7
先進國	2.7	3.2	3.9	3.8	-	4.0	2.8	2.5	-	3.25	2.7
美國	2.8	3.4	4.0	3.9	3.9	3.75	2.8	1.9	2.5	3.0	2.4
日本	2.5	4.2	5.8	5.1	5.6	5.75	4.2	3.8	3.7	4.5	4.1
西獨	2.5	1.7	2.9	3.3	2.9	3.75	1.9	1.5	1.9	2.5	2.1
開發途國	3.3	2.5	3.6	2.4	-	-	4.0	2.9	-	-	2.8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8. 8.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8. 10  
 DRI, European Review, 1988. 10. . .  
 OECO, OECD, Economic Outlook, 1988. 12.  
 KIET, 世界經濟展望, 1988. 12

表 2 世界 交易伸張率 展望(輸入物量基準)  
(單位: %)

年度 國別	1986	1987	1988			1989		
			IMF	WEFA	DRI	IMF	WEFA	DRI
世界	9.6	5.8	7.5	7.7	6.8	5.6	4.5	4.8
先進國	9.1	6.9	8.0	-	7.6	5.4	-	4.4
美國	13.5	2.6	6.9	-	5.2	8.5	-	2.5
日本	13.3	9.3	15.0	-	15.2	4.4	-	10.3
西獨	-	5.4	6.0	-	4.7	4.0	-	3.9
開途國	-	4.4	8.0	-	4.1	7.8	-	7.5
產油國	-22.2	-14.4	-	-	-2.2	-	-	1.4
非產油國	14.4	13.3	-	-	8.3	-	-	8.4

資料: <表 1>과 同一

'89년에는 2.5~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日本의 交易量도 1988년에 비해 그 伸張率이 크게 둔화될 것이나, 예년처럼 先進國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伸張率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世界交易伸張勢의 둔화 속에서도 先進國間 貿易不均衡은 계속 개선될 전망이나 균형수준에 근접할 만큼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즉 美國의 貿易収支赤字는 '88년의 1,420억 달러에서 '89년에는 1,270억 달러로, 日本의 貿易収支黑字는 7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KIET전망치), 여전히 貿易不均衡 改善規模 자체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겠다.

#### 다. 物價

지난 2~3年間 安定勢를 유지해 온 先進國의 물가는 1988년에 들어 매우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先進國의 設備稼働率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雇傭增大에 따른 賃金上昇 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인플레이션 재연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989년에는 景氣鈍化, 低油價 및 기타 原資材 價格의 安定,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연방지를 위한 先進國들의 金融緊縮政策의 유지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연까지는 발전되지는 않고 3~4%

정도 消費者物價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國際金利

國際金利는 1988年 선진국의 경기호조에 의해 따른 인플레이션 재연 우려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國際金利의 방향은 선진 각국의 물가 수준 및 換率安定 그리고 선진 국간 정책협조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 되겠으나, 1989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즉 1989年 상반기에는 성장과 물가상승세의 지속으로 主要國의 金利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며, 하반기에는 景氣鈍化로 인한 金融緊縮基調가 완화되어 각국의 金利는 소폭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表3 참조)

表 3 主要國의 金利展望 (單位: 年利, %)

國別	區分	年度	1989				
			I	II	III	IV	平均
美國	公定割引率	5.2	7.0	7.4	7.5	7.5	7.3
	프라임레이트	9.3	10.3	10.7	10.8	10.5	10.6
	연방자금金利	7.5	8.8	9.3	9.0	8.6	8.9
	유로달러金利 <sup>1)</sup>	7.8	9.2	9.7	9.4	9.0	9.3
日本	公定割引率	2.5	2.5	2.7	2.7	-	2.7
	콜머니레이트	3.4	3.5	3.7	3.8	-	3.7
西獨	公定割引率	3.1	-	-	-	-	3.9
英國	公定割引率	8.3	-	-	-	-	9.3
프랑스	公定割引率	7.7	-	-	-	-	7.8

註 1): 3個月物 基準

資料: DIR, Review of the U.S.Economy, 1988. 10.

- , Japanese Review, 1988. 3/4.

- , European Review, 1988. 8.

특히 美國의 金利는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1989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金利引上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성장세의 둔화에 따른 資金需要의 감소와 聯準의 다소 완화적인 金融政策으로 金利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마. 달러貨 換率

美國의 건실한 經濟成長率의 지속, 金利上昇 및 貿易収支 적자개선 등에 힘입어 135엔 때까지 강세를 보였던 美 달러貨는 1988年 10月이후 다시 강세로 반전되었다. 1989年 美 달러貨는 美 行政府의 經濟政策方向 및 主要 先進國들의 換率安定協助의 정도에 따라 크게

表 4 主要國 通貨의 換率 展望

	通貨	1987	1988	1989
WEFA <sup>1)</sup>	¥	121.2	123.0	119.0
	DM	1.571	1.720	1.670
	F.Fr	5.320	5.886	5.762
	£ <sup>3)</sup>	1.886	1.802	1.737
DRI <sup>2)</sup>	¥	145.9	123.6	109.1
	DM	1.795	1.694	1.546
	F.Fr	6.009	5.820	5.702
	£ <sup>3)</sup>	1.637	1.776	1.689
KIET <sup>1)</sup>	¥	122.0	120.0	115.0
	DM	1.582	1.680	1.650

註 : <sup>1)</sup> 期末 基準

<sup>2)</sup> 期間平均 基準

<sup>3)</sup> 파운드當 달러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88. 11.

DRI, European Review, 1988. 11.

KIET, 世界經濟展望, 1988. 12.

좌우될 것이나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表4 참조)

이와 같이 1989年에도 美 달러 貨가 약세로 예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美國의 國際收支赤字는 아직도 절대규모면에서 巨額이다. 둘째, 지난 3年間的 달러 貨 弱勢에 힘입어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해외부문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완만한 달러 貨 약세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보아 美國이 債務國으로 전락한 이후 美國經濟에 대한 信認度가 저하되었고, 日本·西獨의 경제력 부상으로 달러 貨에 대한 需要減少와 엔 貨·마르크 貨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美 달러 貨는 1989년에는 지난 3年 보다는 매우 완만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선 美國의 貿易赤字 등 구조적 불균형이 최근들어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고, 그 동안의 換率調整으로 주요 國간 換率이 어느 정도 균형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과거 어느 때 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이 1987年부터 換率安定을 위한 政策協同의 경험으로

換率安定을 위한 技術的인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바. 原油 및 國際原資材

1988年 油價는 이란·이라크 戰爭의 종식 발표를 전후하여 產油量 減縮 및 OPEC 회원 國간의 결속 강화가 기대되면서 배럴당 15.2 달러에 달하였으나 다시 내림세로 반전되었다. 이에 OPEC 회원국들이 1988年 11月末 새로운 產油協定締結에 성공하여 油價回復勢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世界 景氣鈍化에 따른 石油需要의 감소 및 財政難이 심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OPEC 회원국들의 增產 가능성이 농후하여 產油 쿼터의 합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油價는 배럴당 13~15달러선(두반이產 기준)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表 5 참조)

表 5 國際原油價 展望

(單位 : 달러/배럴)

	1986	1987	1988	1989
DRI	14.8	17.3	15.3	18.0
WEFA	14.0	16.7	14.6	14.6
IMF	13.5	17.4	14.5	15.0
NIESR	14.5	17.5	15.2	16.5
KIET	14.5	17.2	13.7	13.5

註 : DRI는 世界平均輸出價 基準

WEFA는 사우디 原油輸出復合單價 基準

기타는 OPEC 平均輸出價 基準

資料 : <表 1>과 同一

한편 2年 계속된 非石油 一次產品의 가격 상승에 힘입은 공급과잉과 景氣鈍化에 따른 需要增加勢의 둔화로 1989년의 原資材價格은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된다.

### 3. '89年 國際貿易 環境

世界經濟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世界通商 與件은 美國의 綜合貿易法案 통과와 EC 經濟綜合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先進國의 새로운

保護貿易主義化 내지는 經濟 불력化를 통한 經濟要塞化로 요약되는 험난한 파고를 나타내고 있다.

#### 가. 新保護貿易主義의 심화

戰后 GATT, IMF 체제를 근간으로 한 自由貿易注意는 國際比較優位體制의 재결성 및 선진국의 産業構造調整遲延에 따른 신보호주의 등장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新保護主義는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美國, EC, 日本 등 세 경제권의 격렬한 貿易紛爭, NICS의 輸出商品에 대한 강력한 輸入規制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그 수단도 최근에는 불공정 무역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反덤핑·相計關稅措置, 市場開方壓力, 國內經濟政策에의 간섭 등으로 고도화 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반도체와 같은 尖端産業分野 그리고 금융, 보험과 같은 서비스 분야, 知的所有權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新保護貿易主義는 世界經濟成長의 회복 정도, 선진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정도, 産業構造調整의 속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전 정도에 따라 강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1989年 世界 經濟成長率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무역불균형의 획기적인 개선 및 급속한 産業構造調整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의 貿易環境이 새로운 國際秩序 모색을 위한 과도기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1990年代까지 현재의 保護主義는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이 保護主義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貿易原則이 대두 되었는데, 상호주의, 공정무역, 그리고 쌍무주의가 그것이다. 이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이념으로서, 최근에는 이러한 무역원칙이 무차별적으로 혼재되어 輸出自律規制, 市場秩序 維持協定 및 輸入規制, 市場開方과 같은 通商壓力 등의 복잡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 貿易原則이 적용된 美國의 綜合貿易法이 1989년부터 발효되는데, 이 법은 不公正 貿易慣行國에 대한 보복조치와 對美 黑字國의 換率協商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對美 輸出依存도가 큰 나라들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1970年代 후반에 들어 國際 金融去來의 활발 및 情報通信技術의 급속한 발달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미국의 貿易外去來에서 커다란 黑字를 보여주는 서비스 交易이 '89년에는 더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즉, 향후 세계적인 經濟 소프트웨어 趨勢, 尖端技術開發과 技術水準의 高度化, 知識集約的 商品의 貿易增大가 전망됨에 따라 서비스 市場에 대한 개방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1980年代에 들어와 기술진보의 가속화, 新技術 開發, 産業構造의 첨단소프트화, 기술 및 知識集約化에 따른 知的所有權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先進國의 對開途國 知的所有權 보호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동문제에 대한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經濟의 불력化 추진

世界經濟의 力學關係의 변화 다시 말해서 1970年對 日本 經濟의 부상, 80年對 아시아 NICS의 등장은 EC와 美國經濟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간 貿易通商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多者間 문제해결보다는 雙務間 방식이 선호되고, 지리적·역사적 공통배경을 중심으로 實益을 도모하는 地域主義와 불력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EC는 日本, NICS 등 제3국에 잠식당한 EC 域內市場 및 域內産業의 保護 尖端産業에서의 美·日과의 격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키 위해 EC 市場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여 1992年 완전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EC의 결속에 자극받은 美國은 美國·이스라엘, 美國·캐나다간에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한데 이어 日本 ASEAN, 아시아 NICS, 호주 등과도 自由貿易協定締結을 통한 自由貿易國의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日本도 이같은 서방 경제의 불력화 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西太平洋 중심의 독자적 불력 형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력화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는지 현재로는 미지수이기는 하다. 현재 世界經濟는 實利를 중심으로 제1세계, 제2세계 그리고 제3세계가 또는 東西와 南北이 서로 접합하고 화합하는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될수록 그 만큼 더 경제 불력화의 필요성은 커지며, 경제 불력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경제적 각축전은 더욱 더 가열화된다. 따라서 열강간의 經濟戰爭은 앞으로 더욱 더 多元的이며 多角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맺는 말

世界貿易環境의 保護主義傾向이 심화되어 지역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1989年の 世界經濟 成長率 및 貿易伸張率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990年代까지도 世界經濟의 각종 불균형이 균형 수준에 근접할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의 大小에 관계없이 黑字國은 市場開放, 通貨價值 切上, 內需擴大, 國際公共財 供給 등 政策調整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며, 赤字國은 輸出主導成長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貿易環境의 변화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對外通商摩擦을 外生的으로 방생하는 압력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內生的 變수로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通商摩擦의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通商政策의 기본방향을 通商摩擦의 근본요인인 經常收支 및 貿易收支의 黑字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데 두고 換率의 適正評價와 市場의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무역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公共貿易, 經濟의 불력화 및 雙務主義 지향적 通商政策이 만연되고, 이같은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경제하에서 우리는 通商外交를 강화하여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對內的으로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成長을 지속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産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調整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와 함께 과거 經濟成長의 엔진이 輸出이었다면 향후 제2의 엔진은 內需라는 점을 주시하여 輸出과 內需의 均衡成長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